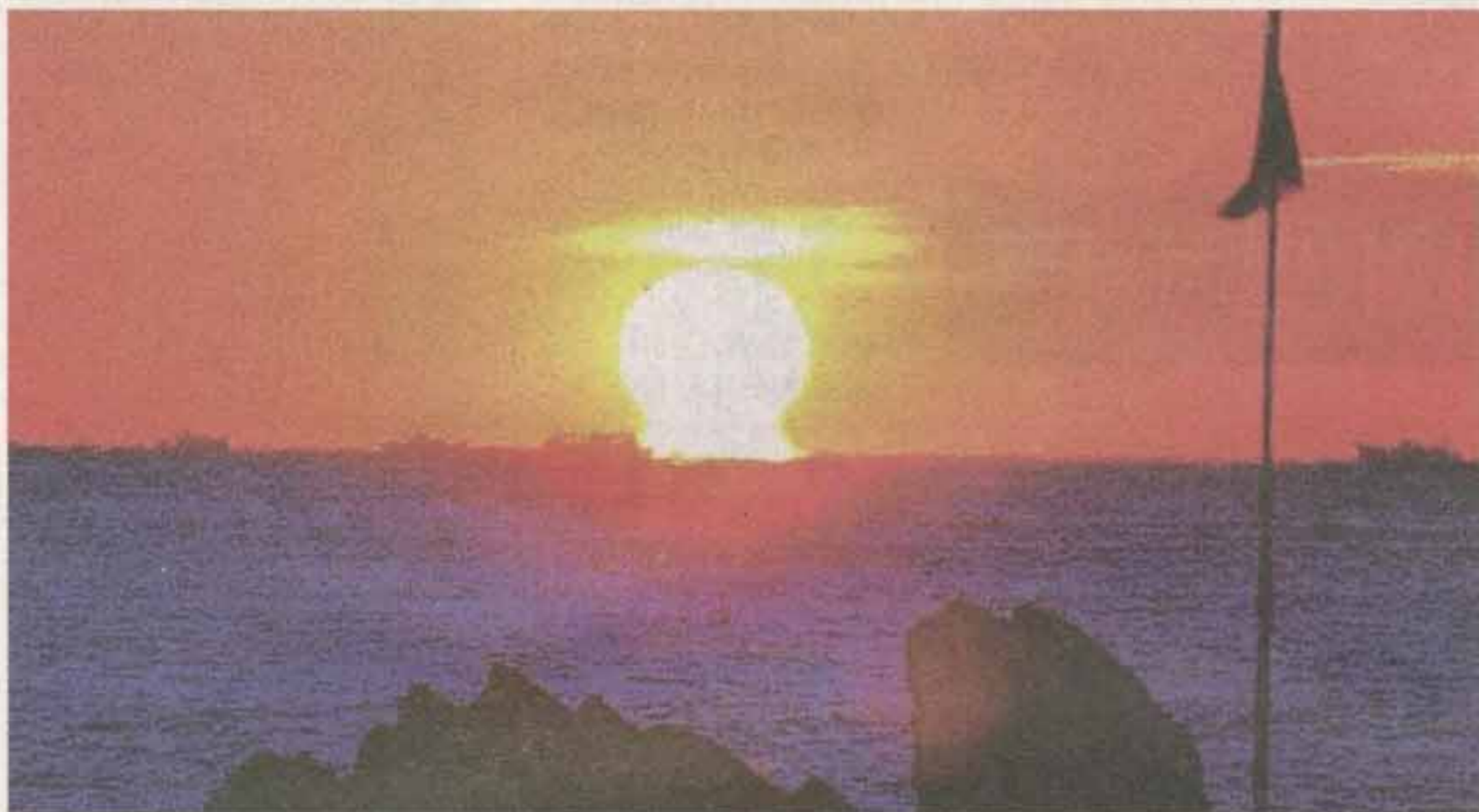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廣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문 O/T 4113호
TEL: (051) 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野聯合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 783-0071~2 F: (02) 783-0073



“용마가족이여, 다시 영광을!” 신사년(辛巳年) 새해, 동해의 수평선을 뚫고 솟아오른 2001년의 찬란한 태양이 회암의 21세기를 밝혔다. 경제가 활성화된 가운데 ‘성공시대’를 열어 용마가족들의 가정마다 형운이 넘치고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번영이 예비되기를 소망한다.

신년사



조대제
본부동창회 회장(7회)

21세기의 첫 문 신사(辛巳) 2001년이 활짝 열렸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그렇듯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고 ‘새로운 지평’에의 기대와 소망이 간절하다.

‘새롭다’는 것은 삶의 근본과 원칙을 복원시켜 이를 튼튼히 구축한 대로 잘 보존한다는 데 참뜻이 있다.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는 새 세기를 맞아 근본과 원칙을 복원하는 데 동참하여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창회’로 과감히 재편해야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과감히 도전하고 용전하자. 희망과 기대만큼 시련과 좌절도 따른다. 밖으로는 치열한 정치행태와 불안한 경제상황, 우울한 실업사태, 각박한 사회환경 등이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절박한 현실을 끊임 없는 도전과 용전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역동의 결집력이 필요하다. 안으로는 움츠림을 넘기는 동창사회, 정이 뜨거운 동창사회, 격려하는 동창사회를 지속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책무는 우리 용마가족 개개인에게 있음을 상기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 용마가족이 진정한 용마가족으로 존립하려면 서로 ‘처음의 순수한 만남’으로 돌아야 하고, 이때 비로소 ‘형제’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편견 편애 아집 독선을 버릴 때 서로를 용납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돕자. 우리 동창회가 각종 사업과

행사를 개발하고 가족동참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은 공동운명체의 인식대를 강화·확산하기 위함이다.

본부를 정점으로 각 동거회·지역회·직능회 등의 여러 행사를 활성화시키는 구심점은 바로 용

마 스스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사에도 기꺼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조직을 강화하며 저력을 비축토록 해야 한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남을 탓하거나 뒤견에 돌아앉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렇게 밖에 하지 못하느냐 하고 불만을 쏟아낼 일이 아니다. 참여해서 충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옳은 태도이다. 특히 우리 용마가족은 서로 돕는 데 인식하지 않는다. 세상살이가 요즘처럼 각박할 때일수록 이 같은 좋은 점을 살려 나가야 하고, 이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정보화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확산, 이를 토대로 한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패러다임의 끊임없는 변혁을

요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인간존엄과 문화창달을 21세기 키워드 속에 정보화 기술과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정보화사회가 인간의 가치관 및 존엄성과 문화의 중요성을 쉽사리 삼켜버릴 개인성이 되기 때문에 공존을 위한 연대적 장치로 설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용마가족은 먼저 서로 우에 존경 협력으로 확고한 미래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영광’을 창출하기 위해 용마정신을 드높여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미래준비, 역량 결집을

숙원의 기별바둑대회 연다

조대제본부회장, ‘2001 운영방안’ 발표
정기총회 2월27일·납시대회 부활키로

본부동창회는 제38차 정기총회를 오는 2월27일 개최, 사업계획안과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받고 숙원의 ‘기별대항바둑대회’를 열며 수년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납시대회(민물)를 부활시키는 등 동문유대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전력투구키로 했다.

조대제 본부동창회 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7일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출범시킨 용마산악회 주관의 기별대항산행대회가 용마가족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제대로 진행됐다”며 “올해에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기별대항바둑대회를 6월 초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별표참조).

조회장은 이날 2001년 본부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성황을 이뤘던 기별대항납시대회를 부활시키며, 재경동창회의 신년회(1월17일)와 정기총회(10월21일)에 본부동창회 임원 다수가 참석, 축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본부회장이 용마장학회 이사장을 겸하게 된 만큼 모교에 대한 장학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며 지역동창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배전의 노력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본부동창회의 2001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달 30일 용마장학회 2000년도 결산이사회를 열어 선임이사 선임장을 전달한다.

또 홈커밍데이행사(제15, 25, 35회)를 오는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사이 열며, 관심이 집중된 제2회 기별대항등산대회를 오는 5월27일, 제4회 골프대회를 9월 중순, 기별대항야구대회를 10월7~28일 각각 개최할 방침이다. ‘2001용마의 밤’은 12월14일로 정했으며 4, 7, 9, 11월 네 차례 총무단회의를 열기로 했다.

행사명	날짜	장소
재경동창회 신년회	1월17일	롯데호텔
용마장학회 이사회	1월30일	
용마대상 시상식	2월 7일	대어초밥
임원단 회의(1차)	2월 7일	대어초밥
결산이사회(1차)	2월14일	골프부페
경남고 55회 졸업식	2월14일	학교 체육관
경남중 58회 졸업식	2월15일	학교 체육관
본부 정기총회	2월27일	코오도호텔
모교 입학식	3월 5일	모교 체육관
임원단 회의(2차)	4월 중순	대어초밥
기별대항 납시대회	4월 하순	경남(민물)
제1회 59회 기념식	4월30일	경남고 체육관
졸업 30돌 총 거행	4월28일	국산기념관
졸업 20돌 총 거행	5월 5일	국산기념관
졸업 40돌 총 거행	5월12일	국산기념관
마산·창원 체육대회	5월 중순	
기별대항 테니스대회	5월 하순	
기별대항 등산대회	5월 27일	송학산-구덕산
1회 기별 바둑대회	6월 초순	중앙기행
용마장학회 이사회	6월 초순	
임원단 회의(3차)	7월 초순	대어초밥
제2차 이사회	9월 초순	골프부페
기별대항 골프대회	9월 중순	부산근교 골프장
기별대항 야구대회	10월7~28일	모교 야구장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10월21일	
임원단 회의(4차)	11월 초순	대어초밥
제3차 이사회	11월 초순	
용마장학회 이사회	11월 중순	
2001 용마의 밤	12월 14일	
윤산·마항 용마의 밤	12월 초-중순 매일	
본부총무단회의	4, 7, 9, 11월	

대신동 경남빌라



2~7층 47평형: 12세대
8층 41평형: 1세대
총 13세대

시행·시공·설계·감리

- 경남학원 원장 김근준 (1회, 고문)
- 효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오윤안 (23회)
- 설계·감리: 서울 한인건축 대표 김성탁 (18회), 부산 삼도건축 대표 김영 (25회)
- 모델하우스 OPEN중 • 2001년 3월 31일 입주예정 • 경남학원 본館자리(최고급 빌라)

■경남 빌라의 특징

본 경남빌라는 전용면적 42.03평 공용면적 4.53평으로 공용면적이 분양면적의 9%밖에 되지않고 주차장 서비스 면적 7.2평 발코니 서비스 면적 5.91평을 포함하면 총공급면적이 60평이 되고 타 공동주택보다 약10%이상 전용면적(실면적)이 많습니다.

대신동 경남빌라 현장위치도



• 문의전화: 051) 241-3343, 253-4223

신사년(辛巳年) 새해, 새 희망의 새 태양이 높이 떠올랐다. 참으로 강렬한 빛이요 열정이다.

신사가 다복과 번영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 '용마' 모두의 가슴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 뜻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길 두 손을 정중하게 모은다.

생각하면 나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자랑스런 우리 모두의 모교인 경남고가 없었다면 더욱 더 못났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이 뜨거운 강물로 흐르는 것을 금치 못한다.

지리산 밑 산청 시골 촌놈이 국제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던 삼촌의 권유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경남고에 응시, 입학의 영광을 안았다. 당시 모교는 국산품 애용을 위해 여름에는 무명으로 된 하늘색 반소매 남방에 속색 무명바지를 입었다. 겨울에는 상하 검은 색으로 된 교복을 입었는데 무명천으로 만들

시 평



박종술 제11회 부산시서부교육청 교육장

극복하여 창의력 발휘와 창조 개척 도전하는 정신이다. 불의의 편에서 서지 않고 정의의 편에서 서서 불굴의 강인한 의지로 힘차게 걸어가는 정신이다.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위하며,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상경하에정신이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잘못을 쟁겨주는 참사랑의 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고정신은 이순(耳順)을 넘긴 이 나이까지 내 핏속에, 뱃속에 흘러 살아 숨쉬고 있음을 진하게 느낀다.

이제 우리 용마들은 선배 동기생 후배 재학생 모두가 경고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저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지펴야 한다.

그리하여 동문끼리 화합 발전을 꾀하고, 그것을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가슴에 뜨거운 '경고정신'을 살려 떨쳐 나가자.

'경고정신' 살려 떨치자

어 구김살이 유난히 잘 생겼다. 그렇지만 모교에 대한 자부심은 구겨진 교복까지도 자랑스럽기만 했다. 그때 우리 은사님들의 교육방법은 대단히 엄격하셨다. 그래도 그 엄함은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에 은사님들의 맏디 맏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훈훈한 감동으로 전해 오곤 했다.

개교기념일에는 전교생이 가깝게는 과장까지, 멀리는 하단까지 마라톤대회를 했었는데 인내와 불굴의 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큰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모교의 큰 자량은 '용마정신'='경고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용마정신=경고정신은 스스로가 고난을

박종구(5회) '삼구복지재단' 이사장



박종구 동문 (5회·용마장학회 이사·사진)은 불우이웃을 지속적으로 돕는 사회복지사업을 펴기 위해 50억원을 출연, '삼구복지재단'을 최근 설립했다.

(주)삼구 회장인 박종구는 이번에 설립한 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 올해부터 전국 소년소녀가장 50명의 매달 생활비, 무의탁 장애인 등 수용시설 10곳 운영비, 백혈병 등 저소득 가정 어린이 6명의 치료비를 보조하게 된다.

윤형원(9회) 한국교육학회 회장 취임

윤형원(9회)

한국교육학회 회장 취임



윤형원 동문 (9회·사진)은 새해부터 임기 3년의 한국교육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대사대 교육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동문은 충남대 총장(97년 4월1일 취임)을 끝으로 오는 2월1일 정년퇴임한다. 윤동문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국립대 총장협의회장, 대학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교행정' '교육행정' 등 다수의 저서와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규향(14회)

서울디지털대(SDU)총장



조규향동문 (14회·사진)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퇴임 후 지난해 12월18일 서울디지털대학교(SDU)연합대학총장회의에서 SDU총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회)에 합격, 문교부에 들어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동문은 대학정책실장 국회전문위원 교육부차관 담배인삼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조동문은 담배인삼공사 사장 당시 대전·충남지역 동창회 회장직을 맡아 크게 활약, 조직활성화를 촉진시켰다.

굴껍데기로 천연칼슘비료 개발

강동관동문(16회) '해성727' 해외시장 진출시켜

"굴껍데기를 이용한 천연칼슘비료는 어떤 토질이나 농작물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마다 비료로 뿌리면 흙의 효능이 더욱 뛰어납니다."

(주)해성(경남 통영시 광도면)을 운영하고 있는 강동관동문(16회·사진)은 최근 굴양식 어촌마다 산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굴껍데기인 굴껍데기를 천연칼슘비료로 개발해 국내 농가는 물론 해외 수출시장까지

진출하게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동문이 굴껍데기의 천연칼슘비료 개발에 성공, 상표명을 '해성727'로 정하고 국내시장에 선을 보이자 호평이 대단했으며, 일본의 농가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타나 자신감을 얻었다. 따라서 강동문은 새해부터 미국 남미 등 미주시장을 비롯, 해외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해성727'은 정부의 화학비료 사용



량 감축정책에 따라 개발된 것. 알카리성 비료인 만큼 산성화 토양을 중화시키면서 흙의 경화현상을 방지하고 칼슘미량요소의 다량함유로 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순수한 굴껍데기(Oyster Shell)을 700도 이상에 소성, 분쇄해 제조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도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토양의 과잉장애현상이 전혀 없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민태정(17회)

국립지리원 원장 발탁



민태정동문(17회·사진)은 1월4일 국립지리원 원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민동문은 기술(토목)고등고시에 합격한 이래 국립지리원 지도과장 항공사진측량과장 측지과장 주미대사관 건설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사범대 지리교육과에 출강, 지도학을 강의하고 있다.

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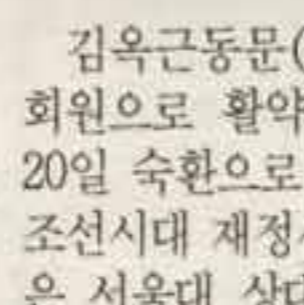
부산대 교수 경성대 대학원장 한국경제사학회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대한민국 학술원상(88년) 국민훈장 석류장(90년)을 받았다. '조선왕조 재정연구사'(1~4권), '한국경제사' '일제하조선재정사론고' 등의 저서를 남겼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영진했다. 지난해 연말 국방대학원을 수료한 허동문은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17회)에 합격, 상공부에 들어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학술원 회원

김옥근동문(3회) 별세



김옥근동문(3회·사진)은 학술원 회원으로 활약하던 중 지난해 12월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조선시대 재정사 연구의 권위인 고인은 서울대 상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수산대에서 경제학박사학

해양수산부 동문 소식

▷ 손부일(19회)=어업지도과장에서 어업기술인력과장으로 전보. 3148-6860

▷ 박종국(26회)=유통가공과장(행정고시 23회). 3148-6630

▷ 이인숙(28회)=세종연구소 교육 마치고 선원노동과장 영전(행정고시 24회). 3148-6630~5

▷ 임광수(28회)=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행정고시 26회). 032-880-6410

이동원(15회)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이동원동문(15회·사진)은 최근 해양오염방제조합 제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동문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1급)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으며 해양수산부 신항만기획관과 항만국장 등을 역임했다.

허범도(22회)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에

허범도동문(22회·사진)은 1월4일

당면직이사
고광수
고한운
김기훈
김선동
김용규
문창해
박지호
방봉우
서원욱
오강환
윤부환
윤태현

이정호
이재현
이현수
이진병
이정승
이성배
이영섭
이영오
이사장
김진평
김계순
김기호

김대원
김동민
김영구
김영원
김철원
김인철
김원철
김현하
김춘석
김의규
김변관
김영소

손영일
송남진
안금준
안병복
안만도
안원화
이봉상
이선형
이승영
이영웅
이영대
이영만

조길수
조용기
조진욱
최병도
최해만
최병용
최홍석
최홍택
총무
서정철

제 10 회 동 기 회 임 원 명 단

용마장학회 이사회 개최... 임원 개선 새 이사장에 조대제 본부회장

본부동창회 (재)용마장학회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6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어빈초밥'에서 2차 이사회를 열어 조대제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결산보고 및 예산안 승인, 임원 개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김근준이사장(1회·본부교문)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임기가 끝난 김이사장을 비롯, 권오현(1회) 정소영(6회) 한동대(9회) 김용규(10회)

- 임기 4년 이사
- 박종구(5회) 박동렬(8회)
- 박한복(9회) 이용흙(19회)
- 박재상(22회·연임)
- 임기 2년 이사
- 이규만 재경회장(12회)
- 김원주동문(22회)

박재상이사(22회)의 퇴임을 모두 수리했다.

이에 따라 임기 4년의 새 이사장에 조대제 본부회장을, 이사에 박종구(5회·서울) 박동렬(8회) 박한복(9회) 이용흙동문(19회·이상 부산)을 각각 선임했다.

또 박재상동문을 임기 4년의 이사로 연임시켰고, 임기 만료 전 사임한 조대제 김봉길이사(8회) 대신 이규만 재경회장(12회)과 김원주동문(22회)을 잔여 임기 2년의 이사로 각각 새로 뽑았다.



▲본부동창회 용마장학회의 2000년 2차 이사회. 임기 만료된 이사장과 이사를 개선하고 있다.

지역동창회 2000 송년회

재경8회 총회 부부동반 54명 축제

제8회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6시30분 서울 서초동 '로얄뷔페'에서 부부동반 54명(부인19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전영배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를 승인했고 이창규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부 송년잔치는 배우원동문의 격조 높은 만담으로 시종 웃음 속에서 무르익었고, 박재범(30만원), 김호석 지창수 홍기성(각 20만원), 조석제동문(10만원)의 협찬 덕택으로 참석자들에게 선물이 안겨졌다.

쌍팔회 "우정충천" 이동식 신임회장에

제9회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세종회관 3층 '장미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을 개최, 우정을 다졌다.

정성근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 이동식동문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총회는 또 이일환 손훈근동문을 부회장에, 허남수동문을 감사에, 김기관동문을 총무에 각각 선임했다.

이어 한해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결의로써 2001년을 맞이 위한 송년잔치를 펼쳤다.

정기바둑대회 성황

한편 쌍팔회 주최 정기바둑대회가 지난해 12월2일 동기회 사무실에서 대국자 및 동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악회장 송성복 선임

또 쌍팔회산악회는 지난해 10월18일 강원도 원주 둔내면 근교 청태산에서 가을정기등산대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송성복동문(전우실업 이사)을 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부동반 4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고 권영대동문의 특별찬조로 행사가 알차다.

▼마산-창원지역회 '2000용마의 밤' 축제에서 ▶사회자가 무대 뒤편에 걸린 '한국의 두뇌 미래의 용마'라는 슬로건이 쓰여진 현수막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두뇌 미래의 용마' 슬로건 선보여 강력파워 馬昌동창회 "뒀다"

30년 전통 용마의 밤 열려 우정상 조호제 이상렬 김성준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해 12월14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에서 '용마의 밤'을 개최했다. 30년 전통의 이 행사는 부부동반 참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두뇌 미래의 용마'라는 플랜카드(가로5m·세로5m)가 걸려진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동문-가족 147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조대제(7회)본부동창회장의 고급 전자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행운상품이 협찬됐고 재경 및 진주회에서는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거제 윤용남회장(14회·옥포초등학교)과 김해 최태환회장(13회·대한부화장 회장)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우정상은 조호제등산회장(21회·신광교통 대표) 이상렬 잔디회 총무(23회·파파이스 신마산 대표) 제40~47회 대표 회장 김성준 동문(42회·동산 관리과)등이 수상했다.

의령 자굴산 등산대회

용마등산회=지난해 11월9일 조호제 회장(21회)주재 2000년 동문-가족 등산대회가 경남 의령 자굴산(897m)에서 열렸다.

일행 29명은 4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경남사회진흥연수원의 정승수 동문(19회·마창 사무국장)이 주선한 쇠고기국밥과 소주로 허기를 달렸다.

골프대회 우승 박건(39회)

잔디회=지난해 5월에 결성된 골프동호인 모임인 잔디회는 12월3일 부곡 칸트리클럽(22회 이치백동문 운영)에서 '동창회장배 쟁탈 골프대

회'개최, 16명이 4조로 나눠 기량을 과시한 결과 △우승 박건(39회) △준우승 김종택(33회) △행운상 하창환(29회) △메달리스트 이용한 동문(37회)이 각각 랭크됐다.

단체우승 제19회 차지 개인 허정환(19회) 하성일(22회)

경석회=바둑동문 모임인 경석회는 지난해 12월10일 창원시 내동 '현대기원'에서 2000년 결산바둑대회를 열었다.

△단체전 우승=19회(허정환 백종무 이인철)·준우승=10, 13, 22회 연



승학산 등산대회

제30회 동문-가족 60여명

제30회동기회는 지난해 11월5일 승학산에서 등산대회를 열었다. 가족동반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오전9시 동아대 학훈단 연병장 집결로 시작됐다. 일행은 단체로 준비한 배낭을 메고 역새플 하늘대고

합(이기돈 구덕건 강상대)
△개인A조 우승=허정환(19회·1급)·준우승 강수승(14회·1급)·3위 구덕건(13회·1급)

△개인B조 우승=하성일(22회·4급)·준우승 이상렬(23회·4급)·3위 이수창(17회·7급).



▲경석회 바둑대회 대국진행 발표



▲등산회 의령 자굴산 등반 기념포즈



▲잔디회 골프대회 기념촬영

32회 경고학예전 "인기" 미전 등 19개 전시·발표 창작의욕 교내 가득히

모교 경남고(교장 김성찬·12회)재 학생들의 창작의욕이 결집된 '제32회 경고학예전'이 지난해 12월 14~16일 학교 체육관을 비롯, 과학관 도서관 등에서 열렸다.

학생회(회장 유용석)가 주관한 이번 학예전은 미술 서예 시화 등 16개 전시회와 음악 연극 통기타 등 3개 발표회로 짜여졌다.

특히 15일 오후3시 체육관에서 펼쳐진 용마대축제와 '맛을 보여드립니다'의 주제로 떡볶이 만두 파전 피자 김밥 각종 음료 등에다 특미 파르페러쉬가 선을 보여 인기를 집중시켰다.

또 정영재군 등 6명(2학년)과 배도현군 등 7명(1학년)이 엮은 '통기타연주회'(지도교사 강문형)도 재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손수 가꾼 찹쌀·돼지고기 송년선물

김해 박세갑동문(15회) 인정 한 아름씩 안겨

김해지역동창회(회장 최태환·13회)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6시30분 김해시 대성동 '금강산식당' 영빈관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소원성취하길 바라며, 더욱 상부상조하는 동문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본부동창회장은 강진평 본부부회장(10회)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명문학교를 나온 동문답게 예절 바르고, 인정 있고, 참을 줄 아는 동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세갑부회장(15회)은 직접 농사를 지은 찹쌀과 돼지고기 등을 협찬해 동문들의 돌아가는 품안을 풍성하게 했다.

제12회 대구·경북회 송년잔치 열고 화합확인

제12회동기회 대구·경북지역회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 대구시 범어동 일식집 '삼강'에서 송년잔치를 열었다.

김중원회장(효성가톨릭대 교수)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회원 18명이 참석했고 부산의 본부동기회 이창대 총무가 귀한 발걸음을 해 자리를 뜻 깊게 했다.

제18회동기회 송년한마당

제18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회관 크리스탈뷔페 연회실에서 2000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중철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부부동반 11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 후문: 제30회산악회는 이 곁의에 따라 매주 일요일 장산과 아홉봉 등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교 '건계정' 아유회에 나선 제7회 동문들이 계곡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건계정 아유회

제7회동기회

제7회동기회는 지난해 10월 25일 경남 거창시 근교 건계정에서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유회를 개최했다.

박두만회장(생활체육탁구협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박회장의 스폰서로 이뤄졌고 조대제동문(본부회장)의 금일봉이 큰 보탬이 됐다.

등대회 홈페이지 구축 "전속항진"

신임회장 김 조(16회) 뽑아

등대회(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계 동문 모임)는 지난해 12월7일 부산 동구 초량동 교원아카데미 빌딩 내 시티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 조동문(16회·천우교역 대표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용호회장(14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80여명의 동문이 참석, 임원진을 개선했다.

특히 등대회는 홈페이지(htty://www.dungdae.com)를 구축, 새해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 △회장=김 조(16회)
- △수석부회장=장연식(18회)
- △부회장=임경범(21회) 주우실(22회)
- △감사=김용기(18회) 김창선(20회)
- △간사장=김영수(31회)
- △총무=노경보(33회)
- △부총무=채인석(35회) 김진영(37회)

조상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신년회 뜻을 담은 이날 총회는 새해 덕담과 격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김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나이에 는 뛰니뛰니해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 변함없이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등산 같은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다져 오래 오래 만나며 살자"고 말했다

새해 덕담가득

제10회 신임회장 김한조



제10회동기회는 1월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광복동 로얄호텔 진달래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한조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은사초청 '낭만열차' 쾌주

제27회 송년회...부인 31명 진기명기 연출

제27회동기회 은사초청 송년회가 지난해 12월9일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부부동반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두찬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김창순 이길상 전병호 조영태은사와 부인 31명이 초대됐고, 부산에서 서도전 관계로 이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김영삼 전대통령(3회)도 우연히 지나가다 잠시 들러 격려사를 해 감격이 넘쳤다.

그리고 공민배 창원시장과 서울의 강형구 김수인, 통영의 서상호, 미국의 김태운(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이철 이현 최기석 김용섭등 문 등이 참석해 더욱 흥겨웠다.

2부 여흥시간에는 초대가수 최진출(부산MBC 전속)의 폭소탄 진행과 노래, 부인들의 노래와 춤,

동문들의 주기어린 장기자랑 등이 한데 어울려 분위기가 뜨거울 대로 뜨거워졌다.

이날 행사를 총감독한 김정진 총무가 진행을 맡은 행운상 추첨에서는 창원 사이클경륜장 개장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성주동문(창원시청 기획실)이 대상(김치냉장고)을 수상하는 행운을 낚았다.

행사를 위해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김태우=김치냉장고(85만원 상당) 1대 ▷임기대=실크 한복저 2벌 ▷김석운=숙녀용 슌 10점 ▷백승엽=허리보호대 3점 ▷배재홍=시가(쿠바제) 1세트 ▷김대영=종합비타민제 4통 ▷박명준=골프장갑 5점·골프강습티켓 100장 ▷전 풍=설중매 5박스·청하7박스 ▷정민화=양주 2병 ▷윤영희(김현수동문 부인)=관화 1점 ▷이태

“기별야구대회 ‘愛情’살려 활성화를”

제언



이 창 대
(12회·경총회장)

선후배 동문 여러분, 특히 수고가 많은 각 동기회 총무님들!
동창회장기 생탈 기별야구대회를 마치고 아쉬움이 있어 동창회보를 통해 몇 가지를 제언한다.
동창회의 가장 뜻 깊은 기별야구대회가 동문 상호간의 친목강화와 알뜰하고 유익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동문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동참이 필수적이며, 집행부의 현실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몇가지 방안을 제안, 신나고 활력 넘치는 기별야구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합팀의 활성화=선배기수의 입장식 이후 구덕산 등산을 실시하고 두 자리 기수

의 연합팀 대전 및 당일 시상.
▷대전팀 동문 다수 참가=당일 선수 부족으로 기권하는 동기회가 없도록 응원단 구성.
▷가족의 동참=부인과 자녀들의 동참을 확산시켜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특별 배려가 필요.
▷대회본부의 관심=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매 경기마다 임원 참관과 선수격려 및 당일 시상부분 개발.
이상과 같은 개선책이 행사 활성화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동문들의 애정이 깃들 때 기별야구대회는 항상 우리 곁에서 발전할 것이다.

경야회 총회

이충원회장(29회) 유임

조직행정위·팀운영위 가동

경야회(부산지역 모교야구선수 출신 동문 모임)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장영근동문 운영·22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충원 회장(29회·PSB연예아카데미 이사·사진)을 유임시켰다.

이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경야회 조직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조직행정위, 팀운영위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조흥기(22회) 황성동(24회) 박광용(25회) 김성관(26회) 임규영(30) 이환용(32회) 김한조(34회) 정문종 이사(35회)가 운영한다.

조직행정위는 배정호(31회), 박상국 부회장(33회)이 제1~32회를, 수석총무인 하현보 동문(33회)이 제33~38회, 총무인 장동수 총무(39회)는 제39~43회, 이종운 총무(39회)는 프로, 전광열 총무(44회)는 아마 현역담당 및 제44~45회, 김민규 총무(46회)는 제 46~55회를 각각 관리하게 된다.

팀운영위는 배기용감독(27회)과 김용표주무(40회), 김석일수석코치(33회)·신영석코치(40회) 등이 맡는다.



▲부산고 29회·경남고 30회 동문-가족들이 친선체육대회를 갖고 우정을 기리는 활동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덕산용마' 수정골서 포효

제30회, 부산고 29회와 친선체육대회 양교 150여 동문-가족 끈끈한 정 나뉘

'구덕산용마'와 '수정골청조'가 한 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벌여 우정을 쌓았다.

제30회동기회는 지난해 10월 22일 부산고 교정에서 열린 이 학교 제29회동기회 주관 제4회 친선체육대회에 참석, 기량을 선보였다.

양교 동문-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으로 시작했다.

정홍모 부산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두 학교의 동문-가족은 영원한 형제애를 발휘하고 친선체육대회 또 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자"고 말했다.

했다.
송영환 경남고 회장은 답사를 통해 "두 동기회의 발전과 동문-가족간의 친교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데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 야구대회를 치렀고 교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전가족 피구대회·남녀 혼성배구대회·릴레이 등으로 기량을 겨뤘다.

특히 동문-가족들은 최우철 부회장(경남고)이 협찬한 운동화를 신고 즐거움을 나눴다.

기금운영관리위원회 출범

대구지역동창회 40여 동문-가족 용마의 밤

대구지역동창회는 12월15일 오후 7시 대구 피크호텔에서 동문-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잔치인 '2000 용마의 밤' 축제를 열었다.

앞서 10월20일 오후 7시 대구 동구 '배박사냉면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규중 동문(15회·조규중치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종원 회장(12회)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2001년부터 동창회기금이 3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이를 관리할 기금운영관리위원회(회장 김종원·12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신임회장 조규중(15회)

- △회장=조규중(15회)
- △부회장=허경표(16회)·정용병(18회)
- △감사=윤일희(28회)
- △총무=허규관(20회)
- △부총무=신수열(31회)

주=양주1병 ▷문두찬=50만원·양주 1병 ▷이판세=20만원 ▷장창조=20만원 ▷공민배=금일봉.

부산회장단·26회 선배 15명초청 녀석한 잔치 용마이칠馬昌會 월례회

제27회동기회(용마이칠) 마산창원지역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6시30분 창원 신월동 '참숯과 생고기'에서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김성주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공민배 창원시장 등 역대 동문 11명과 부산의 문두찬 회장 이판세부회장 김정진총무 김현수등문, 고성외 치과의사 배효택동문, 제26회선배 15명 등 모두 31명이 참석했다.

마창회는 이날을 계기로 가끔 제26-27회 합동 월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제26회선배 15명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은 공민배시장이 중고 26회 입학 후 고2 때 1년 휴학으로 27회 졸업생이 돼 양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특별 초청된 것.



▲울산지역동창회 2000용마의 밤 축제 여흥.

180여 동문-가족 '열린 한마당'

울산 2000용마의 밤
신임회장 김형수(14회)
노래대상 황기철(25회)

울산지역동창회 2000년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8일 오후 7시 울산시내 코리아나호텔 대연회장에서 동문가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준탁회장(13회)이 주재한 1부 정기총회는 신임회장으로 김형수동문(14회·대호산업 대표이사·사진)을 선임했다. 조광수사무국장(13회)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조대제본부회장 및 김

병수총무·부산고지역회장·부여고지역회장 등 내빈 소개, 조희장 인사말, 정원준 지역회고문(3회)격려사, 조본부회장 축사가 있었다. 이에 사업·결산·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을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2부 용마의 밤 행사는 손수일동문(25회)사회로 진행돼 '열린 한마당'을 연출했다. 기별 및 가족대항 노래자랑에서 황기철동문(25회)이 본부회장상을, 강호일동문(14회)이 행운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에게는 갖가지 선물이 안겨졌다.

승학산~구덕산~엄광산 일육산악회, 송년산행 2001년 월별행사 확정

제16회동기회 일육산악회는 지난해 12월17일 승학산에서 송년산행대회를 가진 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인국 산악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대회는 서태복 산행대장의 리더로 오전 10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캠퍼스를 출발, 승학산(496m)~구덕산(565m)~엄광산(504m) 일주 코스에서 실시됐다. 부부동반 40여명은 산행 후 부산 사하구 괴정동 '골목집'(박문규동문 운영)에서 정기총회를 열었고, 송년 잔치를 곁들였다. 일육산악회 2001년 월별산행일정은 다음 별표와 같다.

월별	산행내역
1월	경남 김해 용지봉(728m) 또는 무축산(700m)
2월	경남 의령 자굴산(897m)
3월	경남 고성 거류산(571m)
4월	정기총회(1박2일) 산행관광 전북 내장산 백양사-고창 선운산(444m) -선운사 동백꽃-김제 모악산(774m)금산 사뫼꽃-진안 마이산(675m)
5월	경남 거창 의상봉(별유산 1046m)-가조온천
6월	전남 승주 조계산(884m)송광사-선암산
7월	경남 의령 한우산(764m) 박계계곡 및 일봉사
8월	경남 밀양 사자봉(1189m) 주암계곡
9월	전남 영암 월출산(743m) 1박2일 무안 연꽃축제
10월	경남 창원 화왕산(757m)-관동산(740m)의새터무기
11월	경남 합천 감암산 모산재(696m) 영암사지
12월	경남 김해 신어산(630m)은하사 2001년 말년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지"

제18회 동기회 '2000 가을 밤 즐기대회'가 지난해 10월1일 경남 밀양시 황성동 산내면 다원마을 밤농장에서 동문·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밤농장은 강덕용동문의 죽마고우 박원수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99년에 이어 두번째 찾은 곳이다. 이날 용마가족은 집행부가 지급한 고급 배낭(70여개·150여만원)에 밤을 kg당 2000원씩 주기로 하고 한껏 따냈다. 배낭을 가득 채운 밤은 모두 574kg. 이날 밤줍기대회에서 가족당



제18회 밀양 밤줍기 70여명 대경쟁 부부18쌍·부인만 2명 극성 참석 '못말려' 총 574kg 수확

적게는 10kg, 많게는 20kg의 밤을 주웠고, 18쌍의 부부팀에다 남편 대신 부인만 2명이나 참석해 이채를 띄웠다. 농장주와 각별한 사이인 서울의 이규용동문과 강대원동문의 직장 동료(21회), 이항우동문의 조카 등이 참석해 분위기가 더욱 뜨거웠다. 이번 행사에는 배낭대금·음식비 등 4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됐는데 김용대 김정태 이대은 장수일동문 등이 특찬금을 내고 김길제동문이 대행버스를 제공해 큰 보탬이 됐다.

이날 밤줍기대회에서 가족당

겨울 폭풍우·우박세례 뚫고 100여명 가지산 정복 "야호"

본부 용마산악회 4차 정기산행

본부동창회의 용마산악회 4차 정기산행대회가 지난해 12월 10일 가지산(1240m)일원에서 세찬 비바람과 우박세례를 받으며 열렸다. 한동대회장(9회)을 비롯한 동문 95명과 가족 12명 등 모두 107명이 참가한 이날 산행은 대성황 속에 치러졌다. 일행은 오전 9시40분 석남고개를 출발할 때부터 곳은 날씨로 걱정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석남재와 밀양재 갈림길에서부터 강한 비바람과 우박을 맞으며 추위와 싸워야 했다. 산행보폭이 좁아져 낮 12시 30분경 가지산 정상에 올랐다. 동기회별로 점

심식사를 하고 하산, 백운산 갈림길 ~아랫재~남령리로 내려왔다. 일행은 가지산 유허온천에서 피로

와 추위를 풀고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 오후 8시30분 부산지역 광장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제15회동기회 송년 한마당.

운문산 감동시킨 "15회 만세" 합창

일오산우회, 재경보름산우회 초청 산행
100여명 참석 사상초유 성공작 연출

"제15회동기회 만세!" 100여 산꾼들이 펼친 원색 물결이 석남사~운문산자락을 수놓았다. 1박2일의 결집력은 부산과 서울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촉매제였다. 지난해 1월 18일~19일 치러진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의 재경보름산우회원 초청 경부합동산행대회는 질과 양에서 사상 초유의 대성황을 이룬 성공작이었다. 부산 67명(부인 21명 포함), 서울 36명(부인 11명 포함)등 모두 103명의 용마가족은 18일 울산시 언양군 내 석남사 아랫마을에서 전야제를 열고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뒷날 아침 호박소에서 일행은 A팀과 B팀으로 나눠 산행에 돌입했다. 피가 솟음치는 젊은이들의 행군을 보는 듯했다.

아랫재에서 A팀과 B팀이 합류했고, 그 모습은 장관이었으며 흥분의 연속이었다.

'흠커밍' 50돌 준비꽃 출범

제15회 송년 페스티벌 부부동반 "활짝"

제15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천마홀에서 부부동반 99명(부인 35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주재한 정창환회장은 1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새 천년의 60대는 현 천년의 40대와 맞먹는 젊음과 정력이 있다"며 "실망하지 말고 인생을 더욱 즐겁고 뜻 있으며 건강하게 살자"고 말했다. 김판열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회장인사 사업보고 안전심의 등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오는 5월 개최예정인 졸업 50주년기념 흠커밍데이행사 준비위원으로 박찬호(모금) 김승일(기획) 김판열동문(섭외)을 임명했고, 재경동기회의 준비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협력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연극인 김승일 동문이 사회를 맡은 2부 페스티벌은 2시간 동안 흥겹게 진행됐다. 노래와 춤으로 무르익은 여흥에서 1등 상품권은 안충용동문의 부인 김복련씨가 차지했다. 이날 구형우 동문의 LG선물세트 30점, 손부홍 동문의 고급 모제품 의류 드레싱 기계 3세트, 동기회의 동문용 상품권(롯데백화점 150만원어치)·부인용 선물·2001년 캘린더 등이 골고루 증정됐다.



▲금오산에서 창립10주년 기념 경부합동산행대회를 가진 제27회동기회 동문-가족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부 용마가족 50여명 금오산 올라 "후라 경고!"

제27회산우회 10주년 행사

용마이철(제27회)산우회 창립10주년기념 경부합동 산행대회가 지난해 11월12일 경북 구미시 근교 금오산(976m)에서 열렸다. 이번 산행에는 부산에서 정기남 산우회장을 비롯해 부부동반 30명, 서울에서 김동조 산우회장을 비롯해 부부동반 20명 등 모두 50명이 참가했다.

구미역에서 반갑게 만난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강태영대장의 리더로 산행에 돌입, 오후 1시경 정상에 올랐다. 매서운 날씨 때문에 점심식사 후 바로 하산을 재촉, 오후 4시경 파타장인 '금오산산채지집'에 다시 집결했다. 50명이 각자 소개를 했고 축배를 나누면서 산채지 맛에 정신을 빼앗겼다. 이날 문두찬동기회장이 30만원을 협찬했고 용마이철산우회 10주년기념으로 '쿨맥스터셔츠'가 선물됐다.

제15회 클럽별 활동

- ▷3.8회(회장 홍상석)=1월 8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진춘방'에서 신년 웰레회(16명 참석).
- ▷화친회(회장 이승남)=1월 9일 오후 7시 동래구 온천동 '소도일식집'에서 신년회.
- ▷이화회(회장 김광홍)=1월 9일 오후 7시 장전동 '옛집'에서 신년회.
- ▷사하회(회장 김창구)=지난해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정식집 '귀한 손'에서 송년회 겸 정기 웰레회(회장 등 15명 참석), 김창구회장이 성금 10만원과 양주 1병, 신홍규동문 10만원, 한해수동문 양주 1병 협찬으로 2차 폭탄주파티까지.
- ▷가람회(회장 김승일)=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북경만두'에서 정기 웰레회(회장 등 11명 참석), 김승일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고 본부동기회서 정창환회장과 김부삼총무가 참석, 금일 봉 전달.

어디서 무엇을

제 7 회

柳昌植=지난해 12월2일 별세

제 8 회

李相穆=2월17일 오후 2시30분 목화
예식장에서 아들 성훈군 결혼
李炳緯=(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735-1 동일파크맨션 4동
206호. 051-513-9246
李浩元=(전화번호변경)051-244-
5151
田相植=지난해 11월24일 지병으로
별세
崔載赫=(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탑마을 쌍용아파트
506동602호. 지난해 12월17일 서
울 강남 만리장성에서 아들 우현군
결혼
孫惟一=(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50-1 대우 매종
리브루 908호. 031-915-0106
申昊均=(자택전화변경)02-574-
3738
姜石熙=(자택이사)서울시 종로구
채부동 27 4층. 02-738-3513
朴宰範=대성엘텍 대표.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
상
姜宗秀=(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삼한아파트
1107동502호. 031-706-9161
徐瑛都=(자택이사)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 299
孔相泰=지난해 11월16일 서울 압구
정동 성당에서 아들 현석군 결혼
金炯璧=지난해 11월18일 신라호텔
에서 딸 경화양 결혼
金甲得=지난해 10월15일 별세
洪光秀=지난해 11월2일 모친 별세

제 9 회

金鍾圓=부산대 교수직 퇴임 후 온천
장 PARK오피스텔 513호에 연구
실 오픈. 011-9508-4647
尹性泰=지난해 11월15일 황실예식
장에서 딸 결혼
朴錫萬=지난해 11월19일 모친 별세
張榮鎮=지난해 7월에 별세
崔鉉五=(자택이사)경남 밀양시 삼
문동 409-7. 055-391-6738
秋 光=지난해 12월11일 모친 별
세. (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신
평2동 618-14(5/2). 051-291-
3993
曹石武=(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439-1 동서하이빌 303호.
051-701-0530
劉鳳萬=지난해 12월14일 모친 별세
曹達文=지난해 12월24일 늘봄호텔
에서 차남 결혼
金基炫=지난해 10월8일 신장암으로
별세

李盛旭=(旧 현대)오랜 병고 끝에 지
난해 10월24일 별세
李先浩=지난해 12월9일 하림사에서
장남 상원군 결혼

제 10 회

金相泰=덕인환경(주) 회장. (사무
실전화변경)02-806-7909
金容穆=(자택이사)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삼성아파트 308동1804호.
031-998-6962
趙尙鎭=(자택이사)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88 한양목련아파트
1204동1502호. 051-392-
0948
河奉洙=(자택이사)경기도 군포시
재궁동 무궁화주공아파트 101동
906호. 031-391-2473

제 12 회

동기회에서는 2001년 회원수
첩을 제작합니다.
그 동안 변경사항 또는 사진
교체를 원하는 동기생은 1월31
일까지 동기회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051-243-8385

姜麟周=안동 강인주신경외과 원장.
(전화변경)054-858-9089
姜宗信=지난해 11월25일 모친 별세
金錫一=효성기술공사.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에서 장남 결혼
金石柱=가스조합 전무. 지난해 11월
28일 부친 별세
金宗燮=문경상수도건설 소장. 지난
해 12월16일 장남이 서울에서 결
혼
朴米源=구산약국 대표. 지난해 12월
9일 장남 결혼
朴龍雲=지난해 12월17일 차녀 결혼
安相直=대청동(구 백성사 세탁소)
에서 대동약국 이전 개업. 051-
245-6505
李一男=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장남 결혼
李載己=(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333-2
林相元=지난해 11월25일 장남 결혼
張東錫=부경대학교 교수. 지난해 10
월 사단법인 한국수산화회 회장으로
선출
鄭榮喆=남성초등학교 교장. 지난해
11월25일 늘봄문화상 수상
趙漢紀=원영산업(주) 회장. 지난해

11월21일 서울에서 장남 결혼
黃良男=지난해 12월17일 서울에서
삼녀 결혼

제 13 회

李景宰=지난해 11월6일 부친 별세.
7월25일 모친 별세. 동진분석연구
소 대표. 055-293-5440. 011-
887-3759. (자택)경남 창원시 상
남동 45-1 성원아파트 305동
1202호
崔永才=지난해 11월10일 서울공항
터미널예식장에서 딸 민선양 결혼
金小鎭=지난해 11월21일 별세
許甲道=지난해 11월26일 부산 남산
성당에서 차남 태영군 결혼
金允洪=지난해 12월3일 부산 올림
픽예식장에서 장남 성진군 결혼
林勇秀=지난해 12월13일 모친 별세
李範耕=1월6일 서울 센터빌시티에
식장에서 장남 결혼. 지난해 9월23
일 서울 아미가호텔에서 딸 정은
양 결혼
金康錫=경남도 교육청 교육국장.
055-268-1020. 011-811-5908
金義煥=경남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 055-268-1150
盧日鎔=경부전산시스템(주) 대표이
사. 055-267-1175. 019-510-
0900. (자택이사)서울시 용산구
산천동 6 리버힐 삼성아파트 106
동204호. 02-701-5579
羅俊男=경남 마산시 산호동 13-24
용마맨션 가동505호. 055-246-
5102. 011-878-0403
李孝俊=동우공업 마산지사장. 055-
240-6850. 011-9517-6850.
(자택)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305동1201호
李仙吉=경남 마산시 자산동 301-
15(7/5). 055-245-1145
具德建=경남 마산시 양덕1동 타워
맨션 501호. 055-296-3167. 중
국근무(청도) 86-532-649-
1336
李景準=지난해 7월30일 부산올림픽
예식장에서 장녀 은지양 결혼
金信夫=(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럭키아파트 8동803호.
051-553-6677
姜鍾源=(개업)우래장. 남산동 130-
40 신기빌딩 1층 이스람교사원
맞은편. 051-512-5689
崔 熾=(旧 민흥)한나라당 진해지
구당 수석부위원장. 녹산 배루신도
시추진 협의회 회장. 055-552-
3311
張 淸=(개업)골프연습장.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2-2. 051-703-
4007. 051-703-4646
金香運=부산문현여고 교장 부임
李千石=부산동중학교 교장 부임
金武助=(이전개업)김내과의원. 부
산시 남구 우암2동 189-22 아신
아파트 상가내. 051-635-2494.
(자택)051-746-2382
李太郎=지난해 9월23일 서울 반포
교회에서 딸 진경양 결혼
朴良雄=지난해 10월3일 부산 메리
움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金正成=지난해 10월3일 부산 코모
도호텔에서 장남 동현군 결혼
權純吉=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교장 부임
金鶴大=지난해 10월27일 서울 공항
터미널예식장에서 차녀 서진양 결
혼
金秀一=(자택이사)부산시 서구 압
남동 255-1 송도 탑서빌아파트
802호. 051-975-2425
沈鎭英=(확장개업)울산동부입사학
원. 대입상담실 운영개설. 052-
251-4293
金龍吉=(개업)영비관 갈비집. 부산
시 수영구 민락동 1-2. 051-752-
0071. 016-598-0938

제 14 회

朴文男=HITE 운수 대표. 051-325-
3171. 지난해 8월28일 모친 별세.
(자택)051-242-5232
李吉尾=태성산업(주) 대표이사.
055-332-1271. 지난해 10월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장녀
결혼. (자택)051-416-2081
孫光雄=성모치과의원 원장(거제 옥
포) 055-688-2875. 지난해 10월
8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차녀
결혼. (자택)051-264-4737
金承治=지난해 10월15일 장녀 결혼
(자택)051-338-2498
張豊吉=지난해 10월19일 별세
文聖弼=문성필치과의원 원장. 051-
245-0624. 지난해 10월29일 코
모도호텔 층무홀에서 차남 결혼.
(자택)051-646-4845
金 充=(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15동503
호
金昌善=보문당 화랑표구사 회장(각
종 고급표구, 서화감정) 부산시 서
구 서대신동 로타리. 051-253-
5477. 244-1873
金相守=서부산경찰서 경무과장.
051-257-9801
金健鎬=사상구청 구의회사무국장.

051-310-4091. 지난해 11월12
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291-4458
朴燦培=(자택)경기도 용인시 구성
면 마복리 524-8 연원마을 3호
벽산아파트 125동1002호. 031-
286-8424
姜輝柱=(자택)경기도 안산시 초지
동 호수마을 풍림아파트 102동602
호. 031-413-6159
金永淳=(자택)서울시 은평구 용암2
동 222-22. 02-383-1562
徐廷煥=(사무실)서울시 강남구 논
현동 234-9 덕수빌딩 7층
李賢雨=(자택)경기도 부천시 소사
구 송내1동 308-5. 032-664-
8210
吳慶祚=(자택)02-931-9832
黃弘錫=지난해 11월17일 모친 별세
李大烘=지난해 11월22일 모친 별세
盧芳鈺=지난해 11월26일 모친 별세
曹圭香=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취
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17 엘렉스빌딩 16층. 02-2128-
3004. (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16
동1102호. 031-702-8281

제 15 회

孫芳鈺=(개업)호계약국. 055-231-
9911. 011-864-7183
金正道=11월4일 별세
金康瓊=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장으로 영전. 지난해 11월26일 모
친 별세
金洋一=(자택이사)경남 창원군 도
천면 도천리 890-10호. 055-536-
1211
車武彦=덕도초등학교 교장. 051-
971-3045 (자택이사)부산시 금정
구 남산동 117-9 정구아파트 802
호. 051-513-6213
張秀雄=지난해 10월21일 부산호텔
에서 차남 현호군 결혼
徐八根=지난해 10월21일 금정문화
회관에서 장남 호구군 결혼
金準君=지난해 10월22일 일본 오사
카 국제반점에서 장남 택민군 결혼
姜宰樸=지난해 10월28일 코모도호
텔에서 장남 현석군 결혼
全東錫=지난해 10월28일 서울 강남
구 섬유센터에서 장남 호성군 결혼
愼洪揆=지난해 11월8일 서울 청담
동 탑해당에서 장남 성수군 결혼
李益生=한일동물병원. (자택이사)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741
沈載一=(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93-1 한신아파트 101동
202호. 051-522-9701
吳鳳錫=(주)동일건축 대표이사.(사
무실이전)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10 동일빌딩. (비서실)02-

(7면에 계속)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6면에서 계속)

515-1360. (대표전화)02-515-5411

제 18 회

- 李成一=(주)삼영산업 대표. 055-547-8551~3
- 許鍾=만덕 복음병원 행정원장. 051-343-7582. 011-580-1524
- 金敬傑=(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104-1 삼호가든 2동1401호. 051-743-2547
- 林永燮=(자택)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382-3 자유아파트 111동1902호. 051-469-8484
- 金在昌=부산대 교수. 2000년 늘린 문화상 학술상 수상. 051-510-2375
- 金武源=해운대 보건소장. 051-749-4500
- 金元泰=세무회계사 소장. 051-247-0700~2
- 李相敏=허쉬파과 대표. 용원에 상가 건물 신축. 051-206-9680
- 崔元一=고려철강 대표. 051-317-1800
- 韓靈璇=한신엔지니어링 대표. 051-208-1245
- 裴春根=강서구 명지동 2190. 051-271-0758. 011-9540-1910
- 金聖洙=강서·서사하구 재무국장. 051-204-2273

제 19 회

李龍欽=(주)일신설계 회장. 지난해 11월10일 장인 별세

제 25 회

- 郭東元=부산아이콘스 단장. 051-555-7101
- 金東宰=부산은행 반송동지점장. 051-542-1131
- 金相守=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051-750-7501
- 金有鈺=(주)보람여행사 효창정보통신 이사. 051-311-2443
- 金忠在=서울은행 좌동지점장. 051-702-3601~3
- 朴英潤=서울은행 양정동지점장. 051-852-0101~5
- 余聖祚=N.Y.종합건설(주) 대표. 051-313-1001
- 尹熙大=LG화재 부산본부장. 051-6002-100
- 李漢植=(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051-462-4711
- 金圭煥=제일투자신탁증권(주) 동래지점장. 051-553-7111
- 許實權=LG텔레콤(해운대우체국영). 019-552-0132

제 26 회

- 金鍾宇=지난해 12월26일 부친 별세
- 王淨日=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16-12 동부화재 5층. 051-500-1007
- 金榮燮=포항제철 연구소 근무. 부친 별세
- 池龍燮=(자택)부산시 남구 대연3동 1808 대연삼익비치아파트 103동706호. 051-627-8909
- 玉太日=(자택)부산시 북구 화명동 1170-1 화명대림타운 405동204호. 051-363-1767. 011-801-1741
- 李詰學=(사무실이전)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87-3 정목빌딩 6층. 051-583-7781~7. (자택)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경동아파트 102동1501호
- 金太勇=(개업)(주)엘리트 커뮤니케이션.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83-3 임페리얼빌딩 5층. 051-731-1529
- 李淳哲=해운대고등학교 수학교사. 지난해 10월22일 모친 별세
- 金鍾洙=해운대고등학교. 051-742-0313.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445-37. 051-864-8948
- 金正述=(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13 삼성아파트 109동2001호
- 朴福洙=지난해 12월17일 모친 별세

제 27 회

- 金泰雲=경성대학교 산업공학과(공학박사) 교수. 051-620-4726. (자택)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익기존아파트 11동203호. 051-626-9082
- 張昌祚=부산시의원. (유)현대정화 부사장. 051-292-4273. 지난해 11월25일 부친 별세
- 韓昌憲=삼성물산 일본 福岡 지사장. 81-92-475-7025. 81-90-9790-8410. E-mail:hchangh@samsung.co.jp
- 趙峯寬=부경대학교 전기과 교수. 051-620-1434. 011-9514-0043.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롯데2차 202동1101호. 051-742-6826
- 朴現浩=부산은행 당평동지점 지점장. 051-895-8432.(자택)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에덴동산타운 6동 607호. 051-204-9473
- 姜周勳=동서대학교 회계정보학 교

어디서 무엇을

- 수. 051-320-1614.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롯데2차 202동1002호. 051-701-1301
- 裴秉鎬=(이전개업)고관의원 원장. 051-468-9738.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두산2차 204동801호. 051-702-0383
- 辛幸鄉=(이전개업)청하산부인과의원 원장. 051-326-1317. (자택)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9단지 901동1206호. 051-362-1392
- 吳重煥=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흉부외과 교수. 033-741-1323. (자택)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02동1301호. 02-3461-1181. 019-203-1181
- 姜炳勳=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 2년간 파견 근무. 02-737-8975. 019-590-3109. (자택)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광원아파트 101동304호. 051-751-5949
- 朴哲基=드림하비 대표. 051-265-2127. 지난해 11월11일 부친 별세
- 金太公=더 틈 타임즈(주) 대표이사. 02-392-3800. (자택)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44 영화빌라 202호. 02-384-2948
- 姜渭正=현대자동차 인천출고사무소 소장. 032-888-7341. (자택)서울시 마포구 중동 계룡아파트 101동708호. 02-374-7603
- 金仁石=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02-2290-1346. (자택)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한신3차 29동808호. 02-6242-5027
- 李起峰=프로우택 대표. 019-582-9075. (자택)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삼성아파트 110동1003호. 02-6248-9075
- 金修仁=스포츠조선 사회부 부장. 02-724-6867. 018-312-7109

제 29 회

- 金起榮=부산경남지역 LG정유(주) 진주지사장 승진. 758-5151. 019-523-9522. (자택)경남 진주시 신암동 주공아파트 109동801호. 055-742-9524. 지난해 11월11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장인이신 송두호 은사님 고회연 함
- 梁承龍=부산은행 감만동 신선대 세관출장소장. 051-625-8923
- 河炫兌=한성정갑 대표. 051-505-2110.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현대아파트 202동301호. 051-862-5184
- 李石祚=(개업)관포호텔. 051-552-2118~9

- 柳光鉉=부산안과 이진. 부산시 중구 대청동3가 20. 051-247-2288
- 金鍾明=부산일보 편집부장. 051-461-4140
- 梁正福=동남아해운(주) 상무이사. 051-311-5750
- 白石井=(주)보명건설 부사장. 051-517-3995. 017-590-7837
- 李忠原=경야회 회장. PSB연예아카데미 관리이사. 051-853-9669. 011-9541-5509
- 李鎔洙=(주)대일전업 대표이사. 02-421-0732
- 崔正植=(주)우대기술단 상무이사(기술사). 02-3284-2800
- 安在榮=ISO 9000 심사관.(ABC Quality evaluations INC). 011-864-8991
- 許宗行=중소기업청 부산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 051-469-1644~5. 018-285-2267.(자택)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선경3차 308동301호
- 薛東一=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 051-803-8746
- 李準桓=고려종합운송(주) 기획실장 전보발령. 02-3100-0714. 011-9995-9679
- 朴東洙=지난해 6월7일 부친 별세
- 許景道=SKC 프라자 개업
- 李貞哲=캐나다 거주. 지난해 6월18일 부친 별세
- 朴基贊=전흥상사 상무. 051-242-0682. 011-860-7869. 지난해 6월22일 모친 별세
- 吳德鉉=동고등학교 교사. 051-802-1689. 지난해 6월24일 부친 별세
- 宋熙泰=포철. 지난해 6월25일 부친 별세
- 申弼均=한국감정원 차장. 017-576-8963. 지난해 7월31일 부친 별세
- 金連洙=삼성반도체 부장. 02-750-7650. 지난해 8월4일 부친 별세
- 徐鵬教=경원대 건축학과 교수. (자택)750-5299. 017-345-2246. 지난해 9월9일 모친 별세
- 崔政權=경원대 조경학과 교수. 750-5285. 지난해 9월9일 부친 별세
- 嚴孝民=두원공영. 02-510-7712. 지난해 9월9일 부친 별세
- 朴慶壽=태양상선(주) 일본지사. 03-5566-6961. 지난해 9월13일 부친 별세
- 高榮成=캐나다거주. 지난해 10월12일 모친 별세
- 琴時煥=포항 상진기업 대표. 054-

772-2471. 지난해 10월8일 부인 별세
李鎭旭=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199-10. 017-202-5863

제 33 회

- 具玉鎭=유니폰잉글리쉬 대표. 02-419-2137. (자택)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8 후곡마을 영풍아파트 503동1103호. 031-918-6592. 011-471-2117
- 金錫道=ETC 외국어학원 원장. (자택)경남 양산시 중부동 696-1 동아아파트 101동2102호. 055-383-0544. 011-580-3126
- 김운재=성균관대학교 교수. 031-290-7459. (자택)군포시 산본동 을지아파트 624동501호. 031-393-6147. 019-383-7459
- 柳宗男=울산시청. 052-229-3742. (자택)울산시 남구 아음1동 신정현대타운 209동2403호. 052-260-5674. 018-684-5674
- 朴相基=라이징스타. (자택)경남 김해시 외동 일동한신아파트 111동 703호. 055-325-2376. 018-256-1534
- 송태영=굿디자인월드 실장. 02-756-803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9-22 206호. (자택) 02-3445-1778. 011-831-5092
- 申鍾九=제일웨딩뷔페 대표. 02-924-2001. (자택)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574-32. 02-955-8466. 019-325-3405
- 옥숙헌=대성부동산 대표. 부산진구 전포3동 347-45. (자택)051-802-8866. 011-567-8493
- 李相烈=코코스비전 대표. 051-327-3444. (자택)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가락타운 114동606호. 051-201-1544. 011-562-0665
- 李相錄=대홍강업 대표. 054-278-2565. (자택)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럭키아파트 105동1301호. 054-246-1357. 016-539-3400
- 曹奉潤=웅동중학교 매점 대표. 경남 진해시 두동 284-1. 055-547-7951. 011-586-7951
- 許 雄=수영치과기공소 대표. 051-752-7518. (자택)경남 양산시 허북면 순지리 협진태양아파트 803호. 055-382-6740. 011-853-7518
- 洪禹植=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부장. 02-2222-1898. (자택)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88-2 서광아파트 709동1203호. 031-204-4905. 017-332-8031
- 黃 喆=(주)리딩택 이사. 031-975-6725. (자택)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74-30 현대아파트 3동 1109호. 02-582-4361. 019-292-7000.

제 18회 동기회 임원 명단

회장
김 중 철

직전회장
강 동 섭

고문
김 경 길
김 길 제
김 길 출
김 대 현
김 동 회
김 무 룡
김 원 태

김 재 경
김 중 문
김 준 길
박 성 철
박 영 복
박 중 순
안 창 범
서 용 태
오 기 찬
우 원 호
이 상 민
이 향 우
한 성 근

부회장
김 만 근
김 사 권
김 중 금
남 두 진
박 도 형
이 대 운
이 성 일
임 도 근
박 정 길
홍 우 재

상임이사
김 상 규

김 용 대
손 찬 규
이 강 인
이 형 학
임 영 섭
최 관 철
최 강 등
홍 중 수
황 길 휘

감사
홍 광 회
박 석 도

총무
오 수 명
최 회 영

서클회장단
홍광회(등산)
김성수(남시)
양정만(바둑)
이상민(테니스)
박중순(골프)



김영삼 전대통령 부산 서도전 성황 모금 1억6000만원 이웃성금 쾌척

새해 취호
'大道無門'
본부동창회
기증

본부동창회 고문인 김영삼(3회) 전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부터 10일까지 부산일보사 '부일갤러리'에서 연 서도전을 통해 모금한 1억6000만원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화제를 모았다.

김 전대통령은 "이번 서도전에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준 용마가족과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서도전 수입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새달리며 김상훈 부산일보사장(오른쪽)에게 기탁하고 있다.

이번 서도전에 출품된 작품은 '송백장청(松栢長靑)' 등 105점으로, 모두 판매됐는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1점('민주주의')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대통령은 이번 서도전에 앞서 본부동창회에 신사년 새해 취호 '大道無門'을 기증했다.

한편 김 전대통령은 당초 서도전 모금액으로 거제 생가에 자신의 재직시 통치사료와 자료 등을 전시할 기념관을 건립키로 했으나 결심을 바꿔 이를 불우이웃성금으로 쾌척했던 것.

1천동문 감동·폭소 한마당

본부 '2000용마의 밤'축제... 행운대상 노태규 상호 격려속 "미래 개척 기수 되자" 결의

본부동창회 주최 '2000용마의 밤' 축제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7시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롯데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국내외 1000여 동문이 참석,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사진).

조대제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1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용마가족의 열정과 성원을 '동창회의 영광'에 응집시켜 미래를 개척하자"고 말했다.

기별야구 우승·준우승 시상

최득호 본부사무국장(11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박동렬부회장·8회)에 이어 제32회 기별대항야구대회(9월 24~10월 28일)에서 우승한 제33회와 준우승한 제38회에 우승기 및 준우승컵을 각각 수여했다.

식순에 따라 재경동창회 김성규회장(11회)의 축사와 이규만 차기회장(12회)의 인사, 송두호본부고문(3회)의 격려사, 축하 케이크 절단, 김근준고문(1회)의 건배사로 일제히 축배를 들고 희망의 새해를 맞을 각오를 했다.

김영삼 전대통령 축하메시지

이날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영삼 전대통령(3회)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2000용마의 밤 축제가 동문 상호간의 우애와 관심을 더욱 돈독히 하고 모교에 대한 사랑을 한층 더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동창회에서 김경희 고문(9회)을 비롯해 김성규회장 이규만 차기회장 박양조 국장(19회) 이상민 총무(36회)가, 지역에서

는 이수창 마창회장(17회) 및 정승수 사무국장(19회), 다수의 지역회장과 동문, 허태열(18회) 김형오국회의원(20회), 문정수 전부산시장(12회), 이종덕 국제신문사장(17회), 오거돈 부산시 정무부시장(21회)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 김영삼 전대통령과 국회의원인 유홍수(11회) 김기춘(12회) 정형근 동문(17회)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

'동동구리무'촌극 박수 갈채

2부 페스티벌에서는 레이저쇼에 이어 '갑격시대'주제의 사이버댄스(5인조 무용단 출연)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장도연(TBN 부산교통방송 MC)의 사회로 진행된 페스티벌은 60~7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동구리무 장수'촌극이 '군세어라 금순아' 등 흥

겨운 가요곡 속에 펼쳐졌다. 이어 부부가수 '해와 달'의 '축복' 열창, 청소년 힙합댄싱, 동문가수 남광수(11회)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장내의 합창을 유도했다.

동기회 대표가수의 노래와 스포츠댄싱, 김용희(28회) 전삼성감독 등 프로야구 재직 동문들이 각 구단 유니폼을 입고 나와 인사를 했고 김동문이 대표로 한국 불렀다.

행운대상 노태규(19회)

이날 행운상 추첨에서 노태규동문(19회)이 대상의 행운을 잡아 칼라TV(29인치·본부회장 기증)를, 차정환동문(30회)이 금상을 차지해 고급 비디오를 받았다.

러닝타임 140분에 걸친 페스티벌은 재학생 10명의 응원가 열창에 이은 박재상본부부회장(22회)의 선창에 따라 '후라 경고'구호, 김형오본부부회장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폐막했다.

"뜨거운 협찬 감사합니다"

행사 음료·주류일체 관계동문들이 특찬

이번 행사의 음료수와 주류는 관계동문들의 협찬으로 충당됐다.

하영철동문(18회·롯데철정 이사)은 사이다 15박스(450캔), 정용주동문(22회·진로발렌타인 부산지점장)은 소주20박스(400병), 윤덕승 동문(28회·OB맥주 부산지점장)은 맥주 20박스(240병) 등을 기증했다.

그리고 행운상품은 ▷ 조대제본부회장(7회)=29인치 칼라TV 1대 ▷ 재경동창회=비디오 1대

- ▷ 유홍수 부회장(11회·국회의원)=체력단련기 1대 ▷ 정철기 부회장(13회·국회의원)=바베큐 전기오븐기 1대 ▷ 김형오 부회장(20회·국회의원)=양주1병 ▷ 김무성 부회장(24회·국회의원)=가습기 2대 ▷ 이길미(14회)=골프화 티켓1장 ▷ 제19회=주방기기 1세트 ▷ 이석조(29회)=웨스턴 레스토랑 식사권 3장 ▷ 제30회=라피도 상품권 ▷ 제33회=남성용 알로에 화장품 1세트 ▷ 제34회=커피·홍차세트 ▷ 이수창(17회·마창회장)=상품권 4장 ▷ 각 동기회=5만원 롯데상품권 2장.씩

부산시용마회 "충전"

활성화방안 다각 제시... 총회 연2회 개최 검토

신임회장 양용길(18회)



부산시용마회(시공무원 동문 모임) '2000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12월8일 오후 6시30분 국제회관 크리스탈뷔페 별관에서 시본청 및 구군 근무 동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회는 사업보고와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양용길동문(18회·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총회는 양 신임회장 인사말, 조길우 시의회 부의장과 이종철 시의원(이상 16회), 오거돈 정무부시장

(21회) 등의 축사가 있었다.

또 부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퇴임한 김염훈 직전회장(15회)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부산시청용마회는 활성화 방안으로 12월 중 실무팀을 구성, 기수별 책임자를 지정해 모임을 정례화하고 승진·전보 동문 격려 축전을 타전키로 했다.

또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스폰서 확보·다양한 이벤트 개발·6급 이하 회원 참석회비 면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회는 연1회에서 연2회 개최를 연구키로 하고 시본청 근무 동문 경우 소그룹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메디칼안과 의원

1월2일부터

정근안과에서 메디칼안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9시30분~오후8시(야간진료)
- 토요일 : 오전9시30분~오후5시
- 일요일 : 오후1시~5시

위 치

서면 롯데백화점(호텔)맞은편 지하도에서 나오는 입구의 1층에 있으므로 계단을 오르실 필요가 없이 도로에서 바로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학박사·전문의 박영기(29회)
의학박사·전문의 정 근
의학박사·전문의 정기하
안과전문의 황상호
안과전문의 김현주

수술 상담·예약

☎ 816-5975~6
(안구치료)

